



한국지리학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

이기석(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서론

대한지리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지리학의 발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점검하는 심포지움의 개최는 지리학도 모두에게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우리학회는 지난 60여년간 어려운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도 30주년 기념논집, 50주년 기념논집, 그리고 2000년에는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를 개최하여 한국 지리학자들의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왔다. 우리 지리학은 타 분야와는 달리 광복이후 100인이내의 관심있는 회원으로 출발하여 중등학교의 국민교육과 대학의 지리교사양성 중심에서 그 기초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 대학의 지리과 증설과 대학원의 확대 등으로 전공분야의 학생은 물론 연구 논문의 발간이 지리학 발전의 근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새로운 지리학 방법론의 도입과 응용 그리고 다양한 지리학 분야의 개척과 활용분야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지리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밑받침이 되었다고 본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학회회원이 1000명에 육박하여 타 학계에 손색이 없는 규모를 갖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모든 분야에서 지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지리학자의 활동범위도 넓히게 되어 직간접적으로 지리학이 사회발전에 다양하게 공헌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기간에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위성사진의 리모트센싱기법이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폭 넓은 활용과 동시에 그 유용성이 인정됨에 따라 지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리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대되고 지리학자의 사회적 요구가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역시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간접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같이 우리 학계의 성장과 학회 활동 그리고 개인 학자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 및 정부 각 기관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통하여 사회적 기여도의 일면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한국지리학의 성장과 전문화

우리 학계는 지난 60년간 대학의 전공자나 관련학과 그리고 학회 회원수에서 타 분야에 못지않은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전공학과의 경우 70년대와 80년대에 현재 28개 학과 중 19개가 새로 창설되었다. 학회 회원수도 1966년 119명에서 2005년에는 1000여명으로 등록 숫자로도 거의 5배에 달하는 회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와 함께 학회도 전공분야에 따라 한국지리교육학회(2005년 2월 부터 국토지리학회로 개칭), 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한국지형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사)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사)한국지도학회, 한국여성지리학자회, 한국관광지리학회, 한국사진지리학회 등 10여개 전문학회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지리학자들이 인접 학문분야 학회에 진출하여 폭 넓은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지리 분야에서는 지질 및 기상학회는 물론 제4기학회에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문분야에서는 많은 지리학자가 국토·도시계획학회를 비롯하여 한국지역학회, 한국측량학회, GIS학회, 한국영토학회, 한국관광학회, 한국동굴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환경교육학회, 동해연구회 등에서 학회장을 비롯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지리학자의 학문적 기여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수용과 그 연구 활동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리학 관련 전공 교수가 순수한 지리학 영역 외에 새로운 영역을 교수하고 있거나 전공하는 분야를 2002년 학회 회원 명부에서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수문학, 지하수학, 산지경관생태학, 제4기학, 화분분석, 환경문제, 지질학, 원격탐사,

지역정책론, 인간생태학, 수도권정책, 지역개발 정책, 지역경제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교수과목과 전공영역의 확대는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기여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학회 활동의 대외적 역량 강화

지리학의 사회적 기여는 학회지 발간, 대형 연구 과제 수행, 그리고 국제회의 등 과 같은 학회활동을 통한 주도적 역할을 들 수 있다. 학회는 지리학 영역의 성장과 학계에 요구에 따라 학술지 발간을 년 1회(1963-1973)에서 현재는 년 6회 발간하고 있다. 학회지 증간은 학계의 발전과 요구도 있지만 지리학의 사회적 위상과도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사항이다.

학회 차원에서 대형연구과제 수행으로는 1980년부터 건교부 국립지리원에서 발주한 『韓國地誌』 편찬사업이 그 처음으로, 1986년까지 국내 대부분의 지리학자와 관련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이 지지는 광복 후 처음 편찬된 것으로 발간된 책자는 주요 대학 도서관과 군 단위 행정기관까지 배포되어 표준 한국지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후 20여년이 지나 2003년부터 제2차 한국지지 편찬 사업 진행되어 충청편과 전라·제주 편에 이어 현재 제3편 경상편이 편집중에 있다.

2000년 29차 세계지리학대회를 치루고 난 이후 우리 학회는 다양한 외부 학술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2003년 학회 부설 지리연구소의 발족은 대외 연구비 수주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1-2003간에 걸쳐 제1차 국립지리원 학술용역으로 '고산자 김정호 기념 사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제2차 학술용역으로는 한국측량협회의 지원하에 '고산자 김정호 관련 측량 및 지도 사료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연구가 김정호에 대하여 집중되었으나 학회차원에 용역을 받아 수행되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도시지리 분야 회원들이 찬반토론에 참가하였으며, 학회는 건교부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으로부터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관련 학술 용역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몇 차례에 걸쳐 관련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행정수도 입지 선정에서 지리학 분야의 중요성을 범국가적으로 일깨우는 데 일역을 하였다.

이어 2005년에 들어와 학회는 한국지지 편찬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앞으로 4년간 ‘해양지명에 대한 조사 연구’ 학술 용역을 맡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해상지명의 명명은 물론 해저지명까지 조사하여 주요 지형지물에 대하여 역사이래 처음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는 정부에서 학회의 역할과 능력을 인정하는데서 온다고 본다. 또한, 지난 2005년 4월에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최초의 학회 심포지움, ‘독도문제 대책을 위한 토론회: 독도의 지정학’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움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지리학자들이 처음으로 학술적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가지도책(National Atlas of Korea)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정부는 정당한 지리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가지도책 제작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학회의 공적 요구를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정부정책으로 반영케 한 사례가 되었다. 학회가 한국지지 편찬 작업 이후 국가지도 제작과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학회의 사회적 공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회차원에서 지리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계기는 2000년 6월 처음 실시하게 된 전국고등학생지리올림피아드의 개최이다. 이는 29차 세계지리학회대회 개최하면서 개최되는 경시대회에 한국 학생대표팀을 참가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제1회 대회 이후 학회는 전국지리교사모임의 헌신적인 도움과 어려운 학회예산의 할애를 통해 2005년에는 제6회 대회를 마쳤다.

3. 개인 회원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지리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데는 학회 활동과 대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별 지리학자들의 집필과 정부기구 내에서 자문 활동,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옳고 그름을 지상 언론, 강연, 캠페인을 통하여 바로 잡는 일을 하여 사회적으로 지리학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다.

먼저 그간에 지리학자들이 대학에서 교육 활동 외에 정부와 주요 기관에서 어떤 자문에 응 하였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자료는 한국지리학계에 제1세대에서 제2세대에 해당하는 22인 학자들의 회갑기념논집과 퇴임기념논집에 기록된 주요 경력사항을 종합

한 것이다. 교육계 경력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경력을 통하여 지리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을 할 수 있었던 가 알 수 있다. 단지 현재 활동중인 지리학자의 정부 자문 분야는 이에 포함하지 않았다.

- 내무부 행정구역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
- 건설부 국토계획조사연구단조사위원
- 건설부 국토계획 심의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위원
- 인구문제연구소 연구부장
- 한국이민협회 전문위원
- 국토종합계획심의위원 전문위원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 국토계획조사단 계획위원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학술위원
- 보건사회부 묘지정책자문위원
- 문화체육부청소년교육자문위원
- (사) 이민협회 이사
- 건설부토지이용계획심의위원
- 정부시책평가위원
- 건설부국토계획조정위원
- 건설부국토정책심의위원
- 건설부정책자문위원
- 한국종합기술공사
- 국방부군수연구위원전문위원
- 건설부측량심의위원
- 국토계획연구소장
- 문화공보부 문화재 전문위원
- 금융통화위원
- 도시계획위원

- 가족계획심의위원회
- 사회보장제도심의회위원
- 중앙통계위원회위원
- 중앙경제심의위원회위원
- 재정금융위원회위원
- 인구문제연구소이사장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상기 기록에 의하면 지리학자들이 건교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부 부처 자문에 응해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리학자들의 정부 자문 실태를 포함하면 청와대 각종기획단 자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총리실, 외교부, 건교부와 문화관광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각 부처에 골고루 퍼져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많은 신진 학자들이 정부국책 연구기관 내지 관련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학회 주소록에 따르면 지리학자들이 종사하는 주요 연구소는 모두 28개소로 지리학자들의 진로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원, 한국감정평가연구원, 기상연구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기상청,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대한항공, 경기개발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항공 GIS기술연구소,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첨단양돈연구소, 교통개발연구원, 강원개발연구원, 구립민속 박물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재외동포재단 등 학회 회원과 지리학자들의 출간물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회 전달 매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의 국제 저명학회지에 출간되는 주요 연구논문이 메스컴을 통하여 바로 보도되어 대중이 새로운 학문 세계에 접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리학자들의 출간물이 논문이든 단행본이든 매체를 통하여 독자와 사회에 회자되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반면에 출간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로 알려 질 뿐 아니라 직간접으로 지리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기회는 아주 드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분야의 책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동안 지리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김찬삼교수의 1962년 간행한 '세계일주무전여행기' (어문각) 로부터 시작하여 1974년까지 4차에 걸친 여행기와 이후 2000년까지 계속된 여행기는 모든 사람에게 닦아오는 세계에 대한 생활상과 이해의 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했으며, 한국인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일을 했다고 본다. 그의 7차례에 걸친 여행기 출간은 아마도 다시는 해 내기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찬삼교수, 1962, 세계일주무전여행기, 어문각

1965, 끝없는 여로: 세계일주무전여행기, 어문각.

1972, 김찬삼의 세계여행, 삼중당 등 2000년 까지 3차의 여행기 발간.

또 다른 한 책은 최창조 교수의 1984년 간행된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으로 오래 동안 지관들의 미신사상으로 치부하여 온 우리 선조들의 궤적을 논리 정연하게 학문적으로 격상시키고 해설함으로써 학계 뿐 아니라 대중적인 이해를 호소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이루었다. 이뿐 아니라 최교수는 현장 답사와 매스컴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풍수의 신비를 밝혀내는 일을 하였다. 이처럼 풍수로서 지리학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역사적으로 처음이 아닌가 한다.

지리전문서적의 출간을 통하여 많은 회원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포상을 받아 연구 성과에 대하여 상응하는 인정을 받은바 있으며 지리학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여기서 지난 기간 출간 학술상을 받았거나 출판계에서 주요 도서로 선정된 모든 책을 망라 할 수는 없지만 80년대 이후 확인 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4년 최창조의 韓國의 風水思想(1984, 민음사) 한국출판협회 주관 "오늘의 책" 선정

1991년 최영준의 영남대로 (1990, 고대민족문화연구소) 宇耕文化財團이 수여하는 제2회
우경학술상 수상

이찬교수의 韓國의 古地圖(1991, 汎友社) 책은

1992년 韋庵 張志淵 先生 記念事業會에서 제3회 韋庵學術賞 수상

1993년 2월 5일 한국일보 주최 제33회 한국출판문화상(저작상) 수상

임덕순 교수의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 (1995, 집문당) 책은

1995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주관 “우리책 16선” “이달의 책”으로 선정

고이찬 교수(학술원 회원)는 한국의 고지도 출간을 통하여 고유한 고지도의 역사지리적 중요성을 대중화하는데 선각자적 역할을 하였다. 이들 지리학 전문서적들은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계에서도 널리 보급되고 읽힌 것으로 안다.

그리고 또 출간과 관련하여 기록 할 만한 것은 2005년도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에서 ‘한국의 책 100’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4권의 지리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4권에 책 중 2권이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추천서 4권 중 3권이 지난 10월 18-23일까지 독일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전시되는 영광을 가졌다.

최창조, 2000,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중국어로 번역).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1999, 한국의 도시, 법문사(최종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의 생활: 한국 역사지리학 논고, 한길사(영어로 번역).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9th IGC, 2000, Korea: The Land and People, 교학사(영어).

그밖에 지리학자들이 다방면에서 지리전문서적을 통하여 지리학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특히, 향토사 집필과 사회과학 전문서에서 타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집필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토연구원이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출간되는 많은 전문서적에 팀의 일원으로 지리학자들의 집필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Seoul, 20th Century: Growth & Change of the Last 100 Years’(2003년 출간)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 책은 2001년 국문으로 출간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영문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지만 해외에 널리 보급된 영문판 지리서적 중 하나인 ‘Korea: Geographical Perspectives’(1989년간,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는 모두 7인의 지리학자가 집필하였다. 이 책은 원래 1988년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우리 지리학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의 지원으로 시작 되었으나 1년 늦어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동안 미국 지리학과에서 Regional Geography of East Asia 과목에 주요 필독서로 채택된바 있다. 두 번째 책은 2000년 29

차 서울 세계지리학 대회와 때를 같이하여 출간된 류제헌교수의 'Reading the Korean Cultural Landscape'(2000년, Hollym) 책으로 대외적으로 한국의 문화지리를 경관 변화를 통하여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하였다. 아마도 한국지리전문서로 Amazon.com 에 소개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2000년 IGC 대회를 계기로 성지문화사에서 편찬된 'Atlas of Korea' 로 지도를 통하여 한국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매신저가 되었다.

개별 지리학자들의 출간 외에 많은 학자들이 국가 학술 용역에 참가하여 크고 작은 연구 업적을 쌓아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일례로 1980년대 국민운동으로 전개된 자연보호운동에 일련에 지리학자들이 참가하여 그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과 묘지정책에 참여하여 지리학자들의 의견을 개진 한 바도 있다.

그간에 많은 지리학자들의 참여 가운데 중요한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는 건교부에서 발행한 '토지이용도 1:5만' 제작에 필요한 국가사업에 참여하여 그 이론과 방법론적 실제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한 부분이다.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1973년부터 1981년까지 계속된 토지분류조사 (1-19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경희대학교 국토개발연구소의 조동규 교수를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작업은 국토의 토지이용 실태파악이라는 시작에서도 중요하였지만 경관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최근에도 지형학자들은 사구의 변동이나 갯벌의 중요성과 같은 응용분야에 관련된 국가 연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군다나 원자력 발전소 입지와 관련하여 부지안정성 조사용역과 같은 연구사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4. 새로운 지리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세계지리학계나 한국지리학계가 지난 반세기에 가장 중요한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헌한 업적의 하나는 지리정보시스템(GIS)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한 응용지리분야를 발전시킨 일이다. 초기 개념은 70년대 시작되었으나 컴퓨터의 발달과 위성사진의 응용이 광범위하게 발전하면서 80년대에는 그 기초를 다지고 90년대는 실용적으로 확대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중등교육 현장에까지 주요

단원으로 소개되었다. 아울러 대학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관련 과목의 전임교수를 채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학과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행정기관까지도 이를 기초로 행정업무 기능을 새로이 배치하게 되었다. 국립지리원 역시 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그 명칭을 2003년부터 국립지리정보원으로 바꾸었다. 지리학과 지도학을 기초로 하여 컴퓨터와 접목하여 이루어 낸 GIS는 이제 사회생활에 한걸음 닦아가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중등 교육으로부터 대학까지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응용분야를 넓히어 사회발전에 활용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우리는 지리학을 다루면서 환경은 잠재적으로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정작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환경이야 말로 모든 학문분야가 협동체제로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학회에서도 1980년 학회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간과 환경' 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다(학회장 형기주). 1980년대 후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급성장하면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사회적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학회가 설립되고 국민교육과정에 독립된 선택과목을 설치하여 환경교육이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처음 한국환경교육학회는 198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창립되었으며 초대 사무국장이었던 최석진위원이 산파 역할을 하였다. 이 학회는 국내외 환경관련 이슈를 모두 수용하는 반면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 중학교 교육과정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환경'을 독립 선택과목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환경 과학' 과목을 설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제7차에서도 중학교에 '환경' 고등학교에 '생태와 환경' 과목을 선택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였다. 최석진 위원은 본 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환경 과목이 국민 교육에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는 한 가운데에 있었다.

1998년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듯이 서울대학교사범대학 지리교육과(학과장 김종욱) 관리하에 환경교육협동과정이 설치되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환경교육은 지리교육이 주축이 되어 운영 되어야 한다는 실례이며 새로운 영역 창출에 어려운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국내외 지리 관련 이슈에 참여하여

환경과 공간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대두 될 때 마다 지리학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술 논문이나 지상 매체 그리고 방송 매체를 통하여 쉬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밝혀 왔다. 경북대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교수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의 '지역할당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오래 동안 호소하여 왔다. 최근에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부분적으로 지역할당제 의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밖에 우리 사회에는 기피혐오시설의 입지선정 문제, 핵폐기물 저장시설문제, 댐건설 입지 선정과 시행, 다양한 환경 평가문제, 철새보호지역 선정문제, 휴전선 생태계 보전 문제, 세계유산 등재 문제, 영토분쟁, 동해명칭 표기문제 등이 모두 지리전문가의 관심대상이었다. 이들 문제가 대두 될 때 마다 이 분야 지리학 전문가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들 중 사례로 동강댐 건설 반대 캠페인, 세계유산등재 문제, 동해명칭 표기문제에 관련된 지리학자들의 활동을 요약하고자 한다.

동강댐건설 반대 운동은 1998년 시작되어 이후 3년간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경험의 장을 이루었다. 많은 지리학자들이 학문적인 견해를 개진하였으며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건국대 박종관 교수는 동강자연본존연구포럼 의장으로 동강보존의 당위성을 대중화하고 정부 물 부족 논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캠페인에서 박 교수는 지리학회지에 논문기고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 세미나 발제 및 특강, 15회의 신문 기고, 그리고 댐 종합검토 조사단의 일원으로 맹활약을 하였다. 아마도 지리학자로서 이처럼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당당하게 대응하여 결국에는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운동에 일역을 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캠페인에 동참한 여러 자연지리학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오래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 이슈와 관련하여 지리학자의 국제적 활동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공헌이 아닐 수 없다. 1992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지리학회에서 2000년 제29차 IGC의 서울 유치를 위한 지리학회의 노력(학회장 박영한)은 한국을 지리학을 통하여 국제사

회에 알리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1996년 한국이 IGU의 부의장(이찬 교수 1996-2000년 역임)에 선임된 것은 IGC 유치와 함께 우리 지리학사에 중요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 2004년에 부의장(유우익 교수)에 진출은 우리의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GU에서 국제활동은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지만 국가적으로도 장려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과 북한 뿐 만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역사적 유산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는 가능한 많은 한국의 역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국대 이혜은교수는 2003년 이래 세계유산의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년차 회의에 참가 활약하고 있다. 동시에 이 교수는 국제 NGO의 하나인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 소속되어 UNESCO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최근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한국회원으로는 처음으로 15인의 집행위원의 하나로 선임되었다. 앞으로 이 교수의 활동이 한국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보다 밝은 길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쓰여 온 동해 표기가 국제사회에 일본해로 표준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사실은 온 국민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1991년 UN회원국이 된 연후에 1992년 유엔 지명지명표준화회의(UNCSSGN)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표기의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 전문가회의(UNGEGN)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많은 과정을 두고 있었다. 외교부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사단법인 동해연구회를 발족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동해연구회는 지난 11년간 국내외 지명 관련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11번에 걸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역사적 사료의 수집과 동해 표기의 국제적 정당성의 논리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밑받침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최근 세미나는 해외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2002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03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2004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05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해연구회(회장 이기석)는 1994년 이래 UN과 IHO 총회에 대표

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한국은 유엔지명전문가회의의 중요한 실무위원회에서는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리학자들이 동해명칭의 회복운동 뿐만 아니라 UN이나 I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6. 지리학의 사회적 요구와 전망

지리학은 분명 연구 대상으로는 지표면의 자연과 인문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조망하는 분야이다. 때에 따라 지표에 자연현상에 중점을 두기도 했으며, 인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 놓은 공간현상의 연구에 치중하였으며,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조화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다. 연구의 대상은 지난 2000년간 변화는 없었으나 이를 다루는 방법론은 무상하게 변화하여 왔다. 연구방법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의 테두리가 새로워 질 때 마다 우리는 지리학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하여 왔다. 특히, 지표상에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데는 동의 기반이 통일되지 않은 채 늘 평행선을 그려왔다. 그러나 지리학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인간 자체보다는 인간이 지표상에서 생활을 유지하기위해서 구축한 것들 혹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진 것들에 대한 공간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무한히 노력하여 왔다고 본다. 이 처럼 지리학의 관심이 주어진 자연환경과 사회적인 산물에 대한 것이었기에 당연히 지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연구 활동은 우리 사회를 이해 하기위한 기초 연구로서 공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 지리학은 광복 후 그리고 학회 창립 후 6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였다. 되돌아보면 황무지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단단한 학문적 기초를 이루었다고 자부하여도 될 것이다. 학회 차원이나 개인 학자들의 사회적 공헌들을 모두 망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그간 지리학자들의 활동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60년은 새로운 시각에서 지리학이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더욱 매진 할 수 있도록 학회 회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리학의 사회적 공헌에 앞서 우리가 우리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음 세대는 지리학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기 위하여 학회차원에서는 부설 연구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

정에서 지리교육이 독립과목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도 지리학과와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요구에 따라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 바람직하며 지리학 연구가 고용창출에 기여 하도록 해야만 하겠다.

그 밖에 학회 차원에서는 지리학의 정체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문의 정의, 연구분야, 그리고 진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우리 사회에 한걸음 다가가야겠다. 미국지리학회(AAG)는 1945년 이래 주기적으로 지리학의 위상을 점검하고, 자평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학회 독자적으로 혹은 인접 분야의 사회과학자 함께 혹은 학술원과 공동으로 지리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지리학과에서 학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리학위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88개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부록 1 참조). 우리도 한번쯤 유사한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감사의 글

본 강연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학회회원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최석진 연구위원, 박종관교수, 이해은교수께서 그간의 활동을 정리 요약하여 주신 자료에 대하여서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참고자료

- 지리학자 22인의 '회갑 혹은 정년퇴임교수논문집' 참고
대한민국 학술원, 2002,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 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380쪽.
오홍석, 2004, 현대한국지리학사, 도서출판 줌.북메이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2002,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 지리학.교육학.독어독문학.사회복지학, 7-181.
제29차세계지리학회대회조직위원회, 2001, 한국의 지리학과지리학자, 한울아카데미.
형기주, 1995. 12. 30, 신세기를 향한 대한지리학회 - 역사의 뒷무대-, 대한지리학회보, 제48호.
Lee, Ki-Suk, 1985 Geography in Korea, Professional Geographers, 37-3, 344-345.

(부록 1)

Who can you be with a Geography degree?

Aerial Photo Interpreter
Agricultural Planner
Air Pollution Specialist
Air Quality Analyst
Airlines Researcher
Area Specialist
Avalanche Specialist
Biologist
Budget Planning Manager
Business Analyst
Cartographer-Illustrator
City Policy Manager
Climatologist
Coastal Zone Specialist
College/University Professor
Community Development Analyst
Community Planner
Computer Assisted Reporter
Computer Mapping Specialist
Computer Specialist
Conservation Education Coordinator
Convention and Tourism Specialist
County Planner
Cultural Resource Specialist
County Planner
Cultural Resource Specialist
Demographic Analyst

Ecologist
Economic Development Analyst
Economist
Emergency Management Officer
Energy Analyst
Engineer
Environment Planner
Environmental Impact Specialist
Environmental Manager
Environmental Quality Specialist
Environmental Scientist
Field Data Capture Specialist
Geography Education Specialist
Geologist
Geomorphologist
Geopolitical Specialist
Geographic Information Analyst
GIS Program Manager
Historic Preservation Planner
Historical Consultant
Housing Specialist
Hydrogeologist
Hydrologist
Industrial Development Director
Insurance Analyst
Intelligence Analyst
Land Surveyor
Land Use Planner
Location Analyst
Map Analyst
Map Curator /Librarian

Mapping Designer
Market Development Manager
Marketing Analyst
Marketing Executive
Meteorologist
National Park Ranger
Natural Historian
Park Ranger/Interpreter
Physical Scientist
Resource Planner
Planning and Zoning Director
Planning Information Director
Political Analyst
Pollution Control Specialist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
Publisher
Real Estate Appraiser
Real Estate Planner
Real Estate Research Director
Recycling Coordinator
Redevelopment Coordinator
Regional Planner
Remote Sensing Specialist
Research Analyst
Resource Economist
Risk Analyst
Sales Facilities Research Analyst
Soil Conservationist
Soils Specialist
Teacher
Tourism Developer

Traffic Management Specialist

Transportation Planner

Travel Consultant/Planner

Urban Planner

Waste Management Specialist

Water Conservation Planner

Water Resources Planner

Water Resources Specialist

Weather/Climate Specialist

Web Master

Wetlands Conservation Supervisor

Writer

Zoning Administrator

Someone who understands the world around you....